

코리안밸리

Koreanvalley.net

6

June, 2025

액티브 시니어 _ 도예교실

Page 4-5

Korean Valley

June 2025





www.koreanvalley.net
info@koreanvalley.net
광고문의: (213)503-3491

코리안 밸리 문화센터

시니어 컴퓨터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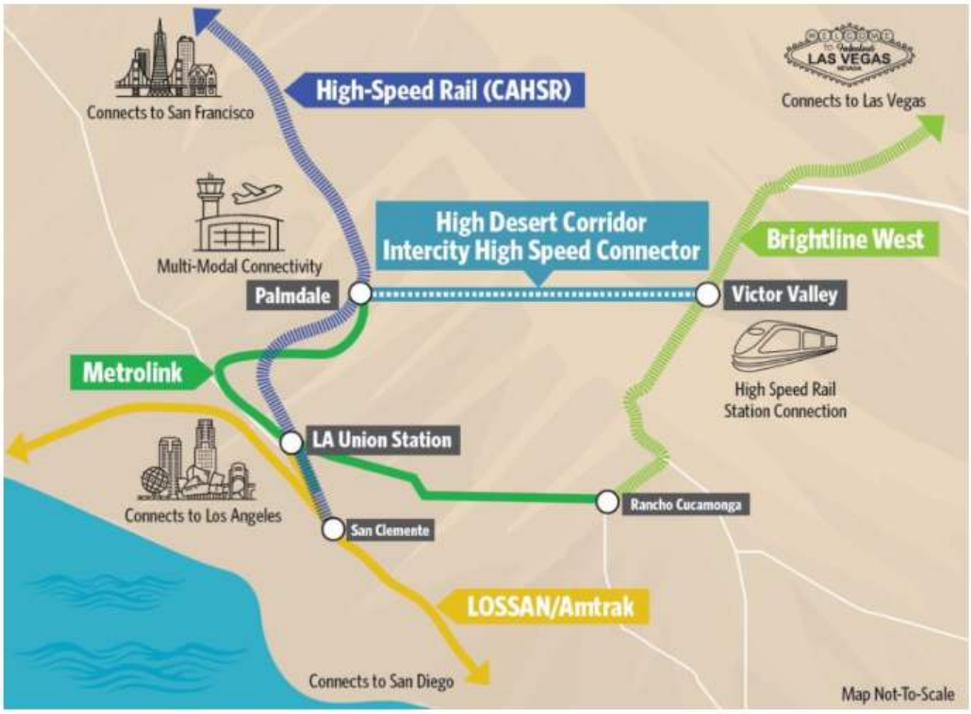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디지털 시대,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컴퓨터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스마트폰 활용, 인터넷 검색, 이메일 사용, 온라인 쇼핑, AI 활용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초보 맞춤 강의!**
***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유용한 강의 내용!**

이제 더 이상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스스로 디지털 세상을 자유롭게 탐험해 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강의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9522 Branding Iron Rd. Phelan
□ 수강료: $50/mon.



HD 코리도, 고속철과 연계 '사막의 대동맥' 꿈꾼다

올해 예산 1100만달러 승인

하이데저트 고속도로(High Desert Corridor: HDC) 에이전시는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2025-2026 회계연도 예산 1,100만달러($11,937,350)를 승인했다.

HDC는 팜데일부터 빅토빌을 연결하는 54마일의 8차선 고속도로이다. 이 도로 중앙으로 기차가 운행될 예정이다.**(지도 참조)**

HDC 건설 프로젝트는 빅토빌부터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하이데저트 고속철도 건설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LA 유니언 역에서 기차를 타고 빅토빌 역을 거쳐 라스베가스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사진 캡쳐=highdesertcorridor.org}

HD 코리도 건설 현황

남가주 하이데저트 지역의 숙원 사업인 '하이데저트 코리도(High Desert Corridor, SR 220)' 프로젝트가 더디지만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25년 5월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 노선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및 기본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일부 우선순위 구간에 대한 최종 설계 및 예산 확보, 초기 단계의 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완전 개통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장기 프로젝트이다.

특히 이 도로는 라스베가스와 남가주를 잇는 '브라이트라인 웨스트(Brightline West)' 하이데저트 고속철도 계획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이데저트 코리도는 고속철도 빅토밸리 역사의 주요 접근로 역할을 수행하며, 앤틸롭 밸리(팜데일, 랭캐스터)와 빅토 밸리(빅토빌, 애플밸리)를 직접 연결해 두 지역 주민들의 고속철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전망이다.

완공 시, 만성적인 14번, 15번, 395번 하이웨이의 교통 체증 완화는 물론, 물류 이동 효율성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하이데저트 지역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리안 밸리 무료 구독
www.koreanvalley.net/contact
매주 수요일 카톡으로 주간 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광고 문의/ 액티브 시니어 기사 제보
문의: 213-503-3491(텍스트 혹은 카톡)
info@koreanvalley.net





흙과 불, 그리고 웃음꽃 피어나는 아틀리에

액티브 시니어 – 예술사랑 도예교실

지난 19일, '예술사랑'의 안주인 김홍비씨가 진행하는 '도예 교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일흔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수강생들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과 호기심이 반짝였다. "취재 오시는 줄 알았으면 곱게 단장하고 왔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면 사진은 끝내 사양하며 수줍어했다. 그러나 작품을 향한 그들의 열정만큼은 숨길 수 없었다.
도예 교실의 김홍비 강사와, 흙의 매력에 푹 빠진 주디, 써니, 샤론 씨에게서 그들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3년째 이어온 흙과의 동행,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김홍비씨에게 도예 교실의 역사를 묻자, "2012년에 문을 열었으니, 벌써 13년 차"라고 답했다.
"예전에는 여러 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마음으로 모여 작업하고 수다도 떨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6월 방학 시즌이 되면 새로운 얼굴들이 늘어날 겁니다."
도예 작업은 흙으로 빚는 순간부터 가마의 불을 거쳐 완성되기까지, 마치 긴 호흡의 시와 같다. "흙으로 정성껏 빚어 초벌구이를 하고, 그 위에 유약을 입혀 재벌구이까지 마쳐야 비로소 작품의 참모습을 알 수 있죠. 여러 수강생의 작품을 한데 모아 가마에 넣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평균 3개월은 족히 걸립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건강을 생각해 도자기를 저화도가 아닌 1300도의 고화도로 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은 더디지만, 그 기다림 속에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긴 인내를 요하는 작업이기에, 꾸준히 발길을 이어가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문의전화는 많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지금 계신 분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 흙과 함께 해오신 분들이죠."
홍비씨는 앞으로의 소망도 내비쳤다. "언젠가 작은 카페를 열게 되면, 우리 수강생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어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요. 그들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판매도 해보고 싶고요."


김홍비


샤론


써니


주디

“흙 만지는 매일이 축복…내 손으로 빚는 행복”

저마다의 빛깔로 빛나는 수강생들이 이야기

주디 씨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흙을 만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치매 예방에도 좋다잖아요?"라며 웃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해요. 어느새 방 한가득 쌓인 제 작품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이곳 '예술사랑'에 와서 창밖의 산도 보고,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이 순간들이 제겐 큰 행복입니다. 제가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낼 때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언젠가는 커다란 항아리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써니 씨는 도예의 깊이를 이야기했다.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한두 번 배워서 뚝딱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꾸준함이 생명이죠. 새삼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걸 느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끝에 찾아오는 기쁨은 더욱 크다고.
"정성껏 만든 생활 도자기를 지인들에게 선물할 때의 기쁨이 정말 커요. 최근에는 콩나물 시루나 두부 틀 같은 소박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었는데, 마치 김홍도의 그림 속 한 장면처럼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멋이 있죠. 오랜 경험을 지닌 홍비 선생님의 가르침 또한 그러한 멋을 닮았고요. 저도 언젠가는 달항아리처럼 품이 넓은 작품을 빚어보고 싶네요."

샤론 씨는 이곳에서 오랜 꿈을 이루었다고 했다. "도예를 배운 지 햇수로 3년 차인데, 제가 여기선 막내랍니다."
그녀는 "제가 만든 그릇으로 손님들을 대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이천 도자기 마을 유튜브를 보면서 디자인 영감을 얻기도 하고, 어떤 유약을 입힐까 고민하는 시간조차 즐겁죠. 매일이 흥미로워요. 20대부터 도자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그 소원을 풀었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예술사랑' 도예 교실은 단순한 취미 공간을 넘어, 인생의 황혼녘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하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류의 장이었다. 투박한 흙덩이가 그들의 손길을 거쳐 예술로 승화되듯 이곳에서의 시간들은 수강생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빚어가고 있었다.

문의: 909-573-9929





한인회 효도잔치 170여 명 참석 성황

한인회(회장 김정순) 효도잔치가 지난 달 8일 W-spoon에서 열렸다. 지역 한인 170여 명이 참석하여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다.

한인회는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한인회와 한인 목사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다. [사진제공=배진홍씨]



헤스페리아에도 '더치 브로스' 커피숍 진출

헤스페리아의 차이나 팰리스 뷔페식당(15555 Main St.)이 헐리고 이 자리에 더치 브로스(Dutch Bros) 커피숍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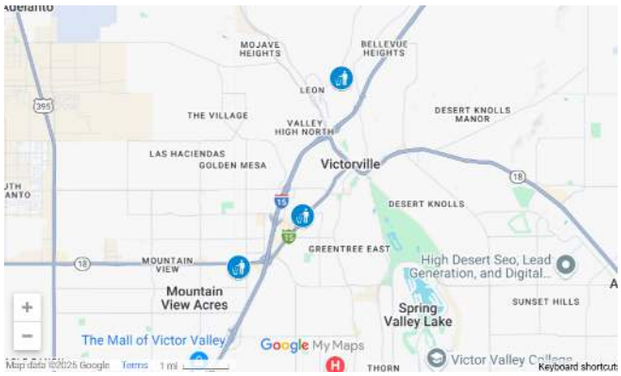


카운티 애니멀케어 센터 확장공사

카운티 애니멀 케어 센터가 6500만달러 예산을 들여 대폭 확장된다. 카운티는 지난 6일 기공식을 갖고 확장공사에 돌입했다.

첨단 애니멀 센터로 지어질 이 건물은 총 5만 6000 스퀘어피트로 현대식 관리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 공사는 2027년 봄에 완공된다.

애니멀 케어센터는 밸리 블러바드와 10번 프리웨이 사이에 위치한다. [사진=San Bernardion county]



빅토빌 시, 쓰레기 수거센터 통합 추진

빅토빌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용 유해 폐기물 센터(카운티 박람회장 뒷편)와 대형 쓰레기 수거센터(Anacapa Rd. 위치)를 한 곳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빅토빌 주민들은 재활용 수거 센터, 유해 폐기물 수거 센터, 퇴비 센터 등 3곳의 별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하면 911으로 신고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더미는 760-955-5104로 신고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빅토빌 쓰레기 수거장 위치]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HD 행복한 교회
High Desert Happy Church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시
E.M: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 오전 6시(화~금)

행복 도시락: 매달 2, 4째 금요일

7898 Phelan Rd.
Phelan, CA 92371
www.hdhck.net
(949)742-2288

초고령화 사회 대책





미국도 초고령사회 닥친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며, 우리 커뮤니티 역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간다. 필랜 지역의 교회나 루선밸리의 농장을 취재하다 보면 이들의 평균연령이 70세를 넘었음을 쉽게 직감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은 미 전역은 물론 미주 한인 사회에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닥치면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고령화 현황: 5년이면 초고령 사회 진입

미국은 현재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 중이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7.3%에 달했으며, 이는 대략 5,8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24년 현재 약 6,200만 명의 65세 이상 성인이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은 기사를 통해 향후 5년 안에 미국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200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2025년 초 기준)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보인다.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29.1%였으며, 최근 보도에서는 29.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 심화, 사회보장비용 급증, 지역사회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25년 문제' (단카이 세대 75세 이상 진입)를 기점으로 후기 고령자 급증에 따른 사회 시스템 변화와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모습은 미국과 우리 한인사회가 미래에 직면할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노후에 닥치는 세 가지 어려움: 건강, 경제, 외로움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노후에 닥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세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다:

건강 문제 (만성 질환 및 신체 기능 저하): 나이가 들면서 만성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낙상 등의 위험이 커진다. 치매와 같은 인지 기능 저하 문제 또한 심각한 위협이다.

경제적 어려움 (노후 빈곤): 은퇴 후 소득은 줄지만 의료비, 간병비 등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 충분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물가 상승은 고정된 연금의 가치를 하락시켜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은퇴, 사별, 자녀들의 분가, 건강 문제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외로움과 고립은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심지어 신체 건강 악화나 인지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미주 한인사회도 준비 시급

따르면, 미국 전역의 한인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약 14.4%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보면 미국 전체 평균(2023년 기준 17.7%~18%)보다 다소 낮아 보일 수 있다. 한인 전체의 중간 연령 또한 약 37.3세로 미국 전체 중간 연령(2020년 기준 38.8세)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중요한 이면이 있다. 바로 이민 세대와 미국 출생 세대 간의 현격한 차이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한인들의 경우 65세 이상 비율이 무려 24%에 달하는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3세의 경우 이 비율이 2%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미주 한인 사회가 체감하는 고령화 문제가 주로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 온 1세대들의 노령화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 초기 이민 세대가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한인 커뮤니티 내 고령 인구 비율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인 사회의 고령화: 이민 1세대에 집중된 과제

미주 한인 사회의 고령화 통계는 좀 더 다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2023년 미국 지역사회조사(ACS) 자료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시급

결론적으로, 미주 한인 사회 전체의 65세 이상 비율은 아직 미국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을 수 있지만, 이민 1세대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는 한인 사회가 앞으로 건강 관리, 사회 복지 서비스, 연금 문제, 그리고 시니어 세대의 사회 참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특히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미국 사회의 복지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민 1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미주 한인 사회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통계 변화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심층적인 이해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빅토빌 한인 목사회

(회원 소속 교회)

회장: 강성수목사
(562-260-8083)
총무: 백성현목사
(760-694-3735)

하이데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홍정택 주일예배:오전11시 13878 Apple Valley. 760-792-1987	**햇빛 재단** 마약, 알콜, 도박 등 중독자 치료와 상담 대표: 김영일목사 문의: 213-432-9791	**빅토밸리 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근 공로목사: 강성수 주일예배: 오전 11시 9191 Deep Creek Rd. 760-265-5690	**나눔동산교회** 담임목사: 임성필 원로목사: 류창렬 주일예배: 오전 10시 4166 Nielson Rd. 714-313-8498
주의 사랑 선교센터 공동담임: 백성현 &백석영목사 주일예배: 정오 12시 11373 Oasis Rd. 760-694-3735	**열린문 기도원** 담임목사: 우정은 주일예배: 오전10시 5705 Stone Basin Rd. Phelan 760-249-5858	**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송국 주일예배: 오전11시 16165 Walnut St. Hesperia 760-887-4848	**신유 기도원** 담임목사: 손 다윗 주일예배: 오전 10시30분 5280 Oil well Rd. Phelan 915-570-7244

재미 수필 신인상 작품 공모전

본 협회에서는 제20회 〈재미수필신인상〉 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필가로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신인상 공모에는 글쓰기에 취미를 가진 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아래 -

* 응모 자격: 재미한인으로 문단에 미등단하신 분
* 응모요령: 신작 수필 3편 (어느 매체에도 발표하지 않은 작품)
  A4용지 2매 내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시상: 당선작 1명 - 500달러 & 상패
  가작 1명 - 300달러 & 상패
  장려 2명 - 상패
* 접수 마감: 2025년 6월 30일
* 입상자 발표: 2025년 7월 개별 통보
* 시상식: 2025년 11월 15일(토) 〈재미수필 27집〉 출판기념회·시상식 및 송년회
* 접수처: 재미수필문학가협회 (KEAA)
  Email: jaemisupil2021@gmail.com
* 유의사항
- 원고 말미에 주소와 전화번호 및 본명 기재할 것
-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당선, 가작, 장려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도 있음
- 현재 활동 중인 기성문인의 응모는 무효 처리함
- 다른 곳에 응모한 작품이나 허위, 표절이 발견될 시 수상을 취소함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 한 영

중화권 코로나 19 재확산...다시 재기되는 공급망 불안

잠잠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재확산의 주요 원인과 현지 실태, 그리고 이것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재확산의 도화선: 변이와 방역 완화의 이중주

이번 중화권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지목된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이 변이는 기존 백신이나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을 상당 부분 회피하는 특성을 지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강력한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진적인 방역 완화 기조가 맞물린 것이 확산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또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추가 접종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중증화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지 실태: 조여오는 방역의 고삐와 경제적 불안감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금 제한적인 봉쇄 조치나 이동 제한,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등의 고강도 방역 카드가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홍콩과 대만 역시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입국자 격리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고려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이로 인해 어렵게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 경제는 다시금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생산 시설 가동 중단이나 물류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안 그래도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반복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불만도 감지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중화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공급망 문제이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 차질은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원료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미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최근 다소 진정세를 보이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 심리 위축은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미국 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중화권의 코로나19 재확산은 단순한 지역적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및 보건 안보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완벽시공의 대명사 **백스 조경**









대형 중장비 보유
땅 정지 작업(클린업)
콘크리트 블럭
펜스/ 게이트
정화조 설치
조경공사 일체

라이선스(Class B #701232)
본드 있음
(714)797-9000/ (310)933-0005



대추나무 200그루 판매



필랜 기후에 적응된
팜추리 수 백그루 판매

**"더운 여름 에어컨을 안 켤수도 없고,
추운 겨울 히터를 안 켤수도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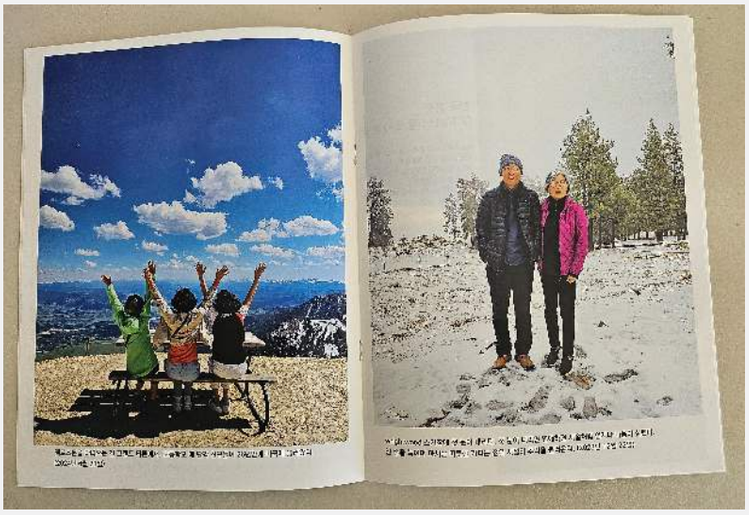
여러분의 고민을 LG 냉난방 시스템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LG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시면 에너지 사용량을 1/4에서 1/2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Bluetech
4323 Nielson Rd. Phelan, CA 92371. 문의: 213-393-2633

핸드폰 속 묻혀 있는 사진,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핸드폰 속에 있는 수 백장의 사진이
따뜻한 감성을 지닌 화보집으로
변합니다.
사진은 많지만 추억은 흐려지셨나요?
이민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십시요!

생각날 때마다 들춰볼 수 있고, 기록으로
남는 화보집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공유하세요.

〈특징〉
* 큼직한 letter Size 판형
* 2 ~ 3부 소량 주문 가능

〈대상〉
* 개인 회고록
* 가족 이민사
* 여행 기록
* 가족 이벤트
* 교회/단체 history book

〈제작 문의〉
코리안밸리 출판부 Hongsan Press
문의: 213-503-3491(카톡 혹은 텍스트 메시지)

오개닉으로 키운 매실 판매 위치:9575 Malpaso Rd. 오미영: 714-889-8426	한마음 섬김의 교회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6시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시
저렴한 하우스렌트 구해요. 6월말 이사 할 예정입니다. 연락처. 213 215 3232	HD 은혜교회, 창립6주년 및 김의구 목사 취임감사예배 6/1(주일). 오후 4시
산불대비 및 생존세미나 323-620-4848 조셉 신	싱글 패밀리 하우스 렌트 방3, 화2개, 리빙룸 323-774-9144 레베카
필랜로드 근처 렌트 구함 방 1개/화장실 1개/리빙룸 323-774-9144	청소년 큰 꿈 동기부여 강연 6월1일, 동양선교교회 323-620-4848 조셉 신
농사 관심있는 분 오세요. 작물 재배법 알려드립니다. 피논힐. 951-396-0163	18번 인근 20에이커 토지 물,전기,1,000그루 대추나무 $27만불. 213-820-0218
주택 상가 식당 ADU 전문 허가부터 시공까지 책임 213-507-2250(에이든)	전기가마. $950 취미 도예작업에 적합 909-576-5773

3줄 광고 무료...코리안밸리 (무료)게시판에 게재된 광고

도자기 클래스 모집

예술사랑: 15551 Cajon Blvd.
San Bernardino
문의: 909-573-9929

광고 문의

1/4 ~ 1/8 사이즈
213-503-3491
(카톡 혹은 문자 메시지)

Victorville Laundromat

파트타임 청소하실 분 구함.
문의: 760-626-8777



오개닉 계란 팝니다.

213-247-0365



청매실 판매
필랜지역 농장
949-742-2021



shed 판매합니다

shed 판매합니다. 사무실로도 사용 가능.
크기: 120스퀘어피트(12x10)
가격: $3000
*사용하지 않은 거의 새 것임
*문의: (213)503-3491

건강한 노후를 위한

메디케어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유니티 • 보험

건강보험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메디케어 신규가입 및 변경 도와드립니다.

- 65세 신규 가입자를 위한 가입신청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Part C (HMO) 가입자를 위한 추가 혜택



하이디 엄
760-239-9006
Lic# 0H94085



제인 림
760-364-0818
Lic# 0D60292



해나 백
714-290-4870
Lic# 0G78292



안 미 숙
213-477-3225
Lic# 0M3872



양 유 신
909-260-4861
Lic# 0G79468



유 민 예
213-407-8425
Lic# 0K36921



테레사 한
714-345-4791
Lic# 0M81950



그레이스 황
714-944-8012
Lic# 0G51446



오바마케어보험
샌버나디노 지역 전문

- 소득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 혜택 비교 분석 후 적합한 플랜 선택
- 주치의 선정과 병원 선택 도움

유니티 • 종합보험 15423 Anacapa Rd, Victorville, CA 92392 (서울 가든 코리아 바베큐몰)

성경 디지털 필사운동

코리안밸리 문화센터에서 필사운동을 전개합니다.
"성경 디지털 필사 운동"은 노트북 컴퓨터로 성경 전권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필사 운동을 하는 이유는 시니어들에게 컴퓨터와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I시대에 타이핑 실력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필사를 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완독할 수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 깊이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이핑 실력이 늘게 됩니다. 타이핑이 가능해지면 컴퓨터 실력은 저절로 늘게 됩니다.
셋째, 성경을 필사해 두면 언제든 내 폰으로 꺼내볼 수 있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여 자신만의 큰 자산이 됩니다.

6월 10일(화) 오후 4시30분, 필사 운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함께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9522 Branding Iron Rd.
Phelan, CA 92371



<필사 운동 설명회>

- **일시: *6월 10일(화), 오후 4시30분***
- **문의: *info@koreanvalley.net***
- **주관: 코리안 밸리 문화센터**